

“교실로 들어온 사법만능주의, 학교가 먼저 본다”

- 국민통합위, 「교육공동체 신뢰 회복」 방안 발표 -

- 관계회복 프로그램, 정서·행동 위기학생 심리치료,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강화 등 제안 -

-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(위원장 김한길)는 7월 9일(화),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,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「**교육공동체 신뢰 회복**」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.
 -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**사회·문화분과**(위원장 김석회)가 지난 1월부터 **교원, 학부모, 학교폭력·교권보호 전문가**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다.
- 학생, 학부모, 교원 등 **교육주체 간** 학교를 둘러싼 **갈등**이 교육 현장을 넘어 **사회갈등**과 **법적분쟁**으로 확대되고 있다.
 - 최근 5년간 **학교폭력***과 **교육활동 침해****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·교원·학부모 등 **교육 공동체**의 안전을 위협하고, **신뢰 관계**를 떨어뜨리고 있다.
 - * (학교폭력 발생) '18년 32,632건 → '22년 57,981건 ** (교권침해 심의) '18년 2,454건 → '22년 3,035건
 -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**법적 분쟁**으로 해결하는 '**사법 의존**'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
 -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 건수가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,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하였다.
 - * (행정심판 건수) '20년 480건 → '22년 889건 (최종 인용률) '20년 17.7% → '22년 11.7%
 - ** (소송 건수) '20년 111건 → '22년 265건 (최종 인용률) '20년 11.7% → '22년 4.9%
-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**교육주체 간 신뢰**를 높이고, **또래갈등**을 보다 **교육적**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했다.
 - 첫째, 또래갈등의 심각성과 경중 등을 고려해 **경미한 또래갈등**은 먼저 학교 내에서 '**교육친화적**'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.

- 특히,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·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 달라고 제안했다.
- 아울러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·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 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.
- 둘째, 학교 내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, 우울증 등 정서·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.
 - 정서·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.
 - 아울러, 학대·방임,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, 경찰,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.
- 셋째,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-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(정기 간담회,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)를 강화토록 주문했다.
- 마지막으로,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·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.
- 오늘 발표한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 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- 김석호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“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,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”고 설명했다.
- 김한길 위원장은 “교원·학생·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,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국민통합지원단 사회통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 정 훈 (02-2100-3431)
		담당자	사무관 송 정 아 (02-2100-3462) 사무관 채 진 석 (02-2100-3427)

목표

함께 갈등을 해결하고, 서로 신뢰하는 교육공동체

추진 방향	주요 제안
<p>“학교 갈등의 사법화” ↓ 1 학교 내 갈등의 교육친화적 해결</p>	<p>1 또래갈등의 과도한 사법화 방지</p> <p>2 갈등 당사자 간 관계회복 지원</p> <p>3 학교현장 생활지도 강화</p>
<p>“갈등 사후 대응” ↓ 2 학교 내 갈등 사전 예방</p>	<p>1 교권 · 학습권 침해 사전 대응</p> <p>2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역할 강화</p>
<p>“개인 간 갈등 해결” ↓ 3 학교 내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</p>	<p>1 학교단위 소통체계 확립</p> <p>2 학부모의 참여와 책임 강화</p> <p>3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</p>

제안 과제

※ 분과위원장 이하 위원 성명 가나다 順

사진	성명	주요 경력	비고
	김석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• 現 지역사회학회 학회장 • 前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• 美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 	분과 위원장
	김대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제9대 총장 • 前 수원 시향, 창원 시향 음악감독 역임 • 前 제9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 • 美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 박사 	분과 위원
	박은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조선일보 편집국 에디터 • 前 조선일보 에버그린콘텐츠부장 • 前 조선일보 편집국 크리에이티브 에디터 •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	분과 위원
	방문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국립교통재활병원장, 서울대 교수 • 前 국립재활원 원장, 장애인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• 서울대 의학 박사 	분과 위원
	이도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(주)바이시클(영유아교육) 대표이사 • 前 (주)디지털캡(디지털컨텐츠보안) 대표이사 • 前 (주)블루코드테크놀로지(인터넷음악) 총괄이사 • 연세대 방송영상 석사 	분과 위원
	정순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• 現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 • 現 한국노년학회 회장 • 美 텍사스주립대(오스틴) 사회복지학박사 	분과 위원